

# 대관령 지역의 산지 토지이용 변화

이학원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 서론

본 연구 지역인 대관령 일대는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산지 지역이다.

강원도는 총면적(16,873km<sup>2</sup>)의 81%가 산지이다. 이는 남한의 총면적에 대한 산지 비율이 65%, 남·북한의 75%에 비하면 각각 16%, 6%가 더 많아 강원도의 산지 분포의 점유 정도를 잘 알 수 있다. 1,000m 이상의 산이 226개나 있고, 1,500m 이상의 높은 산이 18개나 있어 남한 최대의 높은 산지를 이루며, 1,000m~2,000m 이상의 높은 산을 331개나 갖고 있는 함경남도 다음으로 두 번째의 높은 산지 지역이다(강석오, 1979).

‘대한민국의 산골이 강원도라면, 강원도의 산골은 정선과 평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외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대관령지역의 평창인들이 하는 말이다(서울신문, 1982.9.21). 높고 험한 배후산지를 갖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은 일찍부터 고원이나 깊고 좁은 산골짜기의 산간 분지, 하안단구, 바닷가의 해안단구상에 생활하면서 산을 이용한 기술이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강원도 영서지방 사람들은 북한강, 남한강 수계에 발달한 나루터나 창을 통하여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소금이나 생선같은 일상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강원도 산지에서 생산된 목재나 뽕감나무(장작), 산나물, 산삼, 약초, 청석 등을 평야지대로 내 보냈다. 산간 오지에 화전을 일구어 감자·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식량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하였으며, 통나무를 이용한 너와집을 지어 생활하였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설피를 만들어 신고 다니면서 겨울 짐승을 사냥하며 생활하였다.

대관령지역은 영동·영서 지역을 연결하는 근대적인 교통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남한 최대의 산간 오지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가난한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어 생활하던 화전민 취락이 있었다.

1964년 군사혁명 정부 때, 강원도청은 평창군 대관령 지역의 도암면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지역종합개발을 하여 가장 가난하게 사는 지역을 가장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도내 및 국내 각 지역의 지역종합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강원도청은 “산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지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3년간에 걸친 지역조사를 한 후, 1966년 6월에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산지개발을 시작하면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 대관령 지역의 산지지형 특성

평창군 대관령 지역의 도암면 일대는 태백산맥의 중앙산맥이 지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비대칭적인 경동지괴의 정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주위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고원성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동쪽의 대관령(865m)에서 서쪽 뉴치(806m)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고원성의 분지지형이다. 그리고 뉴치에서 하진부(540m)와 대관령에서 영동쪽 강릉(40m)까지는 급경사를 이룬다. 동쪽의 대관령 지역에는 선자령·용봉(1,173m), 고루포기(1,238m), 옥너봉(1,146m)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봉우리들이 서로 연이어 있어 태백산맥 중 가장 크고 높은 산지 지형을 이룬다.

도암면 일대의 북쪽은 황병산(1,407m), 동대산(1,433m), 노인봉(1,338m)과 오대산(1,458m)이 가까이에 중첩되어 나타나며, 남쪽으로는 발왕산(1,456m), 박지산(1,319m) 등으로 둘러싸여 높은 산지상의 분지지형을 이룬다. 넓은 산록원사면이 발달하여 고랭지 농작물 재배와 축산업 및 관광레저 산업 발달의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암면의 고원분지 중심부인 황계에는 송천(松川)의 지류가 모이고, 발왕산과 용산(1,028m)의 하천수를 합류시켜 백령의 천이점을 절단하면서 남류하고, 오대천은 싸리고개를 분수령으로 서류하는 지류가 월정동 부근에서 합류 남류하면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제공해주고 있다.

도암면을 중심으로 북부는 화강편마암대가 발달하여 고위평탄면과 중위평탄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간에 얇은 골짜기가 발달되었는데, 남부는 주로 평안계의 수성암층으로 된 장년기적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송천은 이러한 산을 감입사행하면서 침식곡을 이루며 흐른다. 황계리를 중심으로 십자형(十字形)의 하계에 얇은 침식곡이 평탄면 중간에 형성되어 있고, 고랭지는 중앙산맥의 주향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도암면 일대의 토양은 화강암의 풍화토와 일부 잔적토로 된 담홍갈색토인 식양토 및 식토로서 선자령·고루포기산 등의 중턱과 해발 800m~1,200m 사이, 산록면 경사 5°~18°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과 토양의 대부분은 삼림과 초생지로서 이용되고 있고, 농작물로서 재배되는 것은 감자, 옥수수, 보리, 콩, 삼, 아마 등이며, 그 밖에 약초 호프가 재배되었고, 엇가리 무우 같은 채소가 재배되었다. 특히, 대관령 일대의 초저 생산성은 매우 높아 1ha당 6.2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의 4.5톤보다 훨씬 높아 목축업 발달을 위한 사료 작물의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암면을 중심으로 한 대관령 일대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5.8도이며, 연 평균 강수량은 약 2,000mm나 되어 일년 내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으며, 강한 북서풍이 일년 내내 불어와 선자령의 서쪽은 능선에서 폭 200m가 넘는 넓이로 길게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반대로 동쪽은 수목이 울창한 삼림지대가 형성되어 유축농업의 발전을 위한 자연적 조건과 풍력발전소의 자연적 조건을 잘 갖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청정농산물과 청정에너지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희망의 미래의 땅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대관령 지역의 중앙으로 영동·영서·중부지방을 잇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대관령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온 영서·영동을 잇는 최초의 도로개설은 조선시대 중종(1506~1544년) 때 고형산(高荊山)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소로를 내었던 것이 그 시초이다. 병자호란 때 적이 주문진에 상륙하여 강릉을 지나 이 길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한양을 점령하게 하였다하여 인조대왕(1623~1649)이 크게 진노하여 이 길을 낸 고형산의 무덤을 파 없애라고 어명을 내리게 했던(주간한국, 1966)이 지름길의 소로는 근대적인 교통로가 개통될 때 까지 영서·영동을 잇는 유일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1911년에는 이 지름길을 근간으로 하여 폭 5m의 국도확장 공사가 착공되어 5년만에 완공되었으며, 1966년에는 2배나 넓은 폭 10m의 황성-강릉간의 국도확장포장공사를 시작하여 5년만에 완공하였다. 1977년에는 영동고속도로 중 신갈-새말간 2차선 10.7m 폭의 47.5km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1975년 9월말에는 새말-강릉간 96.5km의 영동고속도로와 강릉-목호간의 32.3km의 동해고속도로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되었다. 1996년 12월에 착공한 황계-강릉간 37.8km의 2차선 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가 2001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호법-가남간의 15km 4차선을 8차선의 확장공사를 2000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면, 영서·영동지방의 각종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관령지역의 토지이용에도 크나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였던 갈브레이스 교수는 개발도상국이나 제 3세계의 정부가 경제발전이나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교통로 개설이라고 하였듯이 교통로만 개설되면 교통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그 교통로를 이용하여 그들의 의·식·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 3. 산지 토지이용의 변화 요인

산지 토지이용의 변화를 주도하는 많은 요인은 많이 있겠지만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지역간의 상호 작용 증대에 따른 접근성의 수요 증대로 인한 교통로의 개설이나(Janelle, 1969), 농업기술의 변화(Knox & Agnew, 1990),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및 국제간의 시장개방 자유화, 환경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문화 및 정치 변화와 인구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간이나 토지 이용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공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김형국, 1997).

또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자연적인 환경 요소와 어떤 결합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농업적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관찰해야 하지만, 그 곳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토지이용이나 농업정책에 관여하는 이유로서 환경보전, 경제성장, 경제안정, 가격조절, 시장조절, 수출의 측면지원, 자급자족을 통한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 농장의 가격, 농가소득, 토지의 최적이용, 토지경영의 최적형태를 지도하기 위해라고 말하고 있다(Mather, 1986).

#### 4. 결론

대관령지역의 산지 토지이용은 국권을 잃었던 구한말부터 해방과 6·25전쟁을 지나는 사회·경제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원시림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화전 개간지로 이용되었다. 1964년 강원도 지방정부가 이 지역을 강원도 산지 종합개발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개발을 시작하면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감자, 옥수수, 무우 같은 채소 재배와 한약재 생산을 위한 약초재 배지로 주로 이용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지향성 상업적 고랭지 채소 농업의 전형적 토지이용이 시작되고, 여름무우, 배추가 재배되고, 겨울철에는 명태를 건조시켜 황태로 만드는 덕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산지개발과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관령목장과 한일농산목장, 제일목장 등의 대규모 목장과 소규모 목장이 160여개가 분포하면서 국내 제일의 목장지대를 이루어 대관령 일대의 황무지는 10여년동안에 황금의 초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고랭지 농업작물인 여름무우·배추 재배가 성했는데, 오랫동안 같은 작물의 거듭된 재배로 지기 현상이 나타나 감자·옥수수 재배지역과 여름무우·배추 재배지역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향상과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에 따른 교통편리 등으로 겨울 스포츠인 스키가 대중화 되면서 평창군 도암권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용평리조트가 자리잡은 황계리 일대는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발왕산에서 시작되는 스키슬로프가 3면이나 증설되고, 신동아·한국콘도미니엄·풍림후랜드리 등 재벌기업들이 각종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하여 콘도미니엄만 2000여 실의 규모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산지고원상의 도시형태가 외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이 곳에서 월드컵 스키대회가 개최되었고, 1999년에 제 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이후 도암면 일대의 대관령 지역은 여름철의 시원한 기온(8월 평균기온 18℃)을 이용한 피서지와 겨울철의 스키 및 눈썰매장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별장과 각종 연수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점점 변화되면서 고원도시화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석오, 1979, 신한국지리, 새글사, p. 39.
- 강원도, 1981, 축산진흥조사연구용역보고서, pp. 1~509.
- 강원도, 1982, 강원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안, p. 45.
- 공우석, 2002, '지리학과 산지연구', 대한지리학회보, 제 73호, p 5.
- 김영진, 1986, "2000년대를 향한 강원도의 개발전략",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31~43.
- 김 인, 1989, 현대인문지리학 - 인간과 공간조직, 법문사, pp. 150~174.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3~29.

- 문경희, 1985, 강원도의 고랭지 농업 중심지에 관한 연구 : 여름배추·무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사 논문, p. 24.
- 서찬기, 1989, “한국에 있어서 농업공간의 발전유형(1960~1980) : 작물의 이해화도 분석”, 지리학, 제 39호, 대한지리학회, p. 10.
- 옥한석, “한국의 화전농업에 관한연구”, 지리학연구, 제 10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 153~178.
- 이학원, 1983, “한국의 대규모 유우목장의 입지와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 1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p. 48~49.
- 이학원, 1990, “강원도 고랭지 농업지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 15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 1~20.
- 이학원, 1999, “강원도의 감자재배 중심지”, 지리·환경교육, 제 7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pp. 505~530.
- 임영달, 1984, “강원도 지역개발의 현황과 정책방향”, 산경논총, 제 2집,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 연구소, pp. 25~47.
- 전제홍, 1988, 영서 태백산지에 발달한 고랭지 농업의 분포와 변천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pp. 27~37.
- 전춘광, 1996, 영서고원의 토지이용과 중심취락의 기능변화에 대한 연구 - 횡계·창촌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pp. 1~39.
- Janelle, D. G., 1969, Spatial Organization : A model and Concept,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9, pp. 348~364.
- Knox, P. and Agnew, J., The Geography of the World Economy, New York : Edward Arnold, pp. 3~11.
- Mather, A. S., 1966, Land Use, Longman, pp. 26~27.
- Morrill, R. L. and Dormitzer, J. M., 1983, The Spatial Order, Duxbury Press, pp. 141~145.
- Symons, L., 1967, Agricultural Geography,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pp. 21~91.